

지난 6일 국제 학무부총장에 취임한 이 부총장을 만나 임기 동안의 계획과 각오를 들어봤다.



후보자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양 선본의 주요 공약의 실효성을 들어본다.

대학주보



스포츠 교류전, '제1회 더 라이언 매치'

관련기사 12면 →

지난 19일 국제캠에서 제 1회 '더 라이언 매치'가 열렸다. 이날 농구부와 농구 동아리의 주 경기장으로 쓰인 선승관은 개최식부터 우리학교와 한양대 학생들로 북적였다. 두 학교의 현수막과 유니폼으로 가득찬 경기장은 평소와 사뭇 다른 새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경기는 농구 동아리, 농구부, 축구 동아리, 축구부 네 개 종목으로 진행된 가운데, 우리학교는 축구부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승리했다.

(사진=김예찬 기자)

온라인 시험서 생성형 AI 사용 부정행위 평가방식 전환 계기 삼자는 의견도

김규연 기자imgonnadoit@khu.ac.kr
한민 기자likeasloof@khu.ac.kr

최근 대학가에서 온라인 시험 중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하지만 우리학교를 포함한 대다수의 대학에서 AI 부정행위 대응 체계 등 제도적 장치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에서 약 600명이 듣는 교양 수업인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의 비대면 중간시험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대는 '통계학실험'이라는 교양 과목의 대면 중간시험에서 AI 사용이 적발되어 재시험이 결정됐으며, 고려대 또한 공과대학의 한 전공수업에서 반복 응시 및 AI 부정행위 정황 등이 발견돼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권 9개 대학(▲고려대 ▲서

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을 살펴본 결과, 대학 차원의 AI 부정행위 대응 체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학칙 및 징계지침을 살펴보면, 부정행위자에 대해 근신, 정학, 제명 등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는 수준의 규정만이 제시돼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 학칙 제35조(성적의 무효)에서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을 0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I 기반 부정행위에 대한 명시적 기준은 없다. 시험·과제에서 AI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규정 또한 부재하다. 학사지원팀과 교수학습개발원이 제공하는 'ChatGPT 활용 가이드라인'과 교수학습개발원의 '생성형 AI의 교수학습 활용 가이드' 역시 수업 내 AI 활용 여부와 기준을 교수 재량에 맡기고 있

어, 실제 AI 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대학은 잇따른 문제를 계기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 학사과는 "12월 중 전반적인 AI 활용 기준을 담은 윤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세대 홍보팀은 "이미 존재하는 AI 가이드라인을 더욱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고려대는 AI·오픈채팅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과목에 화면 공유와 다른 프로그램 실행을 방지하는 '트러스트록(Trust Lock)'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트러스트록' 시스템은 우리학교가 이미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지원팀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접수된 적은 없다"며 "아직까지 AI 부정행위 관련 방

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AI 관련 부정행위가 문제임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규제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세대 첨단융합공학부 김시호(전기전자공학) 교수는 "AI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차원에서 학교가 변화해야 한다"며 "기존의 교육 제도를 벗어나 토론식 교육, 실습형 교육, 융합 학제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안성진 교수는 "이제 결과가 아닌 과정을 묻는 평가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며 "그 외에도 중·고등학교 수행평가처럼 수업 중 토론 등으로 교수가 생각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제 방식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제 총학 비대위로 전환 확정

도은오 기자eunohdo@khu.ac.kr

24일부터 사흘간 양 캠퍼스 학생회 총선거가 이뤄지는 가운데, 총 27개 선거구 중 8곳에서 '입후보자 없음'으로 선거가 무산됐다. 이종엔 국제캠 총학 선거도 포함돼 내년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이 확정됐다. 서울캠 총학 선거는 기호 1번의 '웨스트(KHU;EST)' 선본과 기호 2번의 '노하우(KnowHow)' 선본이 출마했다. 웨스트 선본 정후보는 정종원(Hostipality경영학 2021) 씨, 부후보는 손예지(미디어학 2024) 씨다. 노하우 선본 정후보는 공선진(행정학 2022) 씨, 부후보는 성지창(약학 2022) 씨다.

선거가 무산된 선거구는 ▲국제캠 총학 ▲서울캠 총동아리연합회 ▲경영대 ▲국제대 ▲응과대 ▲전정대 ▲정경대 ▲호관대로, 총 8개다. 선거가 진행되는 선거구 중에서도 경선인 ▲서울캠 총학 ▲생활과학대 ▲약학대학을 제외한 선거구는 모두 단선이 다. 단선은 투표율 50%를 충족하지 못하면 선거가 무산돼 단과대 비대위는 늘어날 수 있다.

학생 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코로나 시기 수준으로 줄고 있다. 내년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자치기구는 최소 8개로, 2021년에 이뤄진 선거 이후 최대다. 최근 4년간 이뤄진 학생회 선거 중 연도별로 선거가 무산된 학생자치기구 수는 2021년 10개, 2022년 1개, 2023년 5개, 2024년 3개다.

안종현(전자정보학 2025) 씨는 "선거가 진행되는지 몰랐다"며 "주변에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연호(응용수학 2025) 씨는 "학생 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줄었다"며 "학생 자치에 너무 무관심한 태도는 우리학교의 고유한 특색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